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16(4):642~648, 2002

# 燥濕觀點에서 본 乾癬 연구

김병수 · 국순호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A Study on Psoriasis from a Viewpoint of the Dryness and the Dampness Theory in Oriental Medicine

Byoung Soo Kim, Sun Ho Kook, Jung Soo Kang*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he Dryness and the Dampness is the congential nature. the Water and Fire is the acquired action. the skin is related to the physiological fuction of the lung, so the skin is the domain of the lung. the lung belongs to the dryness-metal(燥金). And the Dryness and the Dampness in the six pathogenic factors exert a important pathogenic influence upon the skin. Psoriasis is a chronic skin condition charactered by red, silver scaly patches in the affected areas, it is caused by excessive growth of the top layer of the skin(epidermis). Scalp psoriasis affects at least two thirds people who have psoriasis. Generally, the scalp will have plaque psoriasis characterized by elevated, inflamed, lesions covered with silvery white scales. The lesion of psoriasis is head, elbow and knee that are yang-channels in Oriental medicine. The syndrome falls with in the purview of the dryness-metal(燥金). In time, psoriasis takes a turn for the worse in the winter season. In space, many of people in comparison to the average in the world have psoriasis in high latitude that is dry and cold, for instance, the Scandinavian peninsula. Deficiency of yin-fluid and blood course often the dryness-syndrome, for instance, psoriasis, etc. So psoriasis is one of the dryness-syndrome in Oriental medicine.

Key words : psoriasis, dermatopathy, skin, dryness, dampness

## 서 론

우주의 모든 사물은 동양학에서는 천지의 소생이라고 표현하였다. 천지인 乾坤이 교류하여서 만물을 만들고 있다. 이때에 乾坤은 燥濕을 主하고 燥濕은 水火를 生하여 燥濕은 先天之體가 되고 水火는 後天之用이 된다[1]. 燥濕은 인체생리기전의 중추역할을 하고 특히 피부에 있어서는 肺金이 皮를 主하고 太陰濕土가 영향을 주어 手太陰肺主皮毛가 되니 燥濕의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 건선은 은백색의 인설을 동반한 구진을 나타내는 흔한 피부질환으로 분포나 정도가 개인에 따라 아주 다양한 원인 미상의 질환이다[2]. 이를 한의학 관점의 燥濕理論으로 서술을 하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燥濕의 관점에서 건선의 증상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문헌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하였다. 또한 분류방식을 天人地 三才의 법도에 맞게 天時인 시간성과 지방인 공간성, 그리고 人事인 체질과 작용력으로 三分하여 서술하였다.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광역시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omdkjs@dju.ac.kr Tel : 042-483-1724

· 접수: 2002/05/28 · 수정: 2002/06/24 · 채택 : 2002/07/25

## 본 론

### 1. 燥濕의 원리

#### 1) 燥濕의 전체적 개념

東洋學에서는 우주의 부모를 乾坤으로 설명한다. 乾金은 天이 되어 天氣는 燥를 主하고 坤土는 地가 되어 地氣는 濕을 主한다. 乾은 坤之陰爻를 얻어 離를 이루니 '火就燥'라 하며 坤은 乾之陰爻를 얻어 坎을 이루니 '水流濕'의 뜻이다. 乾坤이 化하여 坎離가 되니 燥濕은 先天之體가 되고 水火는 後天之用이 된다. 水火는 卽 燥濕이 변한 바이며 燥濕은 또 寒熱로 인하여 化한다. 水氣는 寒하고 火氣는 熱하다. 寒搏하면 燥生하고 熱爍하면 燥成하며, 熱蒸하면 濕動하고 寒鬱하면 濕凝한다. 故로 寒熱은 모두 燥濕이 化한 것이다[3].

1) 石壽棠, 醫原, pp. 31-35,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3.

風寒暑濕燥火의 六氣는 燥濕 二氣에서 비롯된다. 六氣 中에서 風이 처음으로 시작하고 寒, 暑, 濕, 燥가 가운데 居하고 火가 마지막에 居하게 된다. 風이 처음에 놓이게 된 것은 風은 진실로 燥濕二氣의 動으로 말미암은 바이며 寒暑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은 寒暑는 진실로 燥濕二氣의 變으로 말미암은 바이다. 火가 마지막에 놓이게 된 것은 火도 또한 燥濕二氣의 化로 말미암은 바인 것이다[4].

『周易』[5]의 十二月卦 配屬에 보면 歲半前은 子月에 一陽이 밑에서 始生하여 巳月에 六爻가 모두 純陽인 乾卦가 될 때까지 陽爻가 매월 한 爻씩 증가한다. 이는 아래에서 陽氣는 상승하고 위에서 陰氣는 하강하므로 歲半前의 運氣는 서로 사귀는 地天泰의 현상이며, 단지 陰陽의 多少만 있을 뿐이다. 이는 水火之相交라 할 수 있다. 歲半後는 午月에 一陰이 아래에서 始生하여 매월 陰爻가 한 爻씩 증가하여 亥月에 六爻가 모두 陰爻인 純陰이 된다. 이는 아래에서는 陰氣가 하강하고 위에서는 陽氣가 上升하여 歲半後의 運氣는 서로 분리되려는 天地否의 의미이며 매월 陰陽의 多少가 있을 뿐이다. 즉, 歲半前은 陰陽이 사귀려 하고 歲半後는 陰陽이 분리되려 하는 것이 특징이다.

2) 燥와 濕

唐宗海[6]는 "濕爲水火相交而化者也 燥者 水火不交之氣也", "燥者陰陽消耗之氣也"[7], "水火相蒸爲濕[8]"라고 燥濕에 대한 定義를 내리고 있다. 즉 濕은 水火가 서로 쪄져서 사귀는 것으로 濕에는 水火가 모두 들어있다. 사람의 脾土는 하늘의 濕氣에 本하였으므로 心火와 腎水가 交會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能化物', '運四臟'하는 것은 濕의 작용인 것이다[9].

火가 水를 찌지 못하면 雲雨가 不生하고 水가 火를 濟하지 못하면 露澤이 不降하니 燥는 여기서 이루어진다. 水가 不潤하면 木氣가 滋潤하지 못하고 草木이 누렇게 말라 떨어진다. 火가 훈증하지 못하면 土氣는 발현되지 못하고 膏脈이 枯竭한다. 水火가 不交하는 原因을 硏究하면 金의 收斂性 때문이다. 水火를 붙잡아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가을이 되면 초목이 메마르고 샘물이 고갈되니 이는 燥金이 작용한 증거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燥金之氣를 겸한 것은 陽明經이고 胃와 大腸이 속한다. 胃가 土에 속하나 燥를 위주로 하므로 大腸과 함께 燥金을 이룬다. 金氣가 收斂하여 水火가 不交하면 燥가 된다. 그러므로 '燥者水火消耗之氣'가 된다. 따라서 天地運氣上으로도 歲半前은 陰陽이 사귀는 濕이 유행하고 歲半後는 陰陽이 분리되는 燥가 유행된다. 그러므로 燥氣가 부족하여 水火를 분리시킬 수 없으면 水火가 너무 사귀어서 濕化가 되고, 燥氣가 有餘하게 되어 水火의 分離가 너무 甚하여지면 火不蒸水하여 津液이 不升하거나 水不濡火하여 火燥가 된다[10].

또, 水火는 陰陽之徵兆요, 金木은 生成之始終라 하였고[11] 燥濕은 乾坤으로 先天之體가 되고 水火는 後天之用이 된다고 하니 가장 根源은 燥濕이며 그 다음 水火로 표현되고 완성은 金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太極圖[12]에 비유를 하면 燥濕은 太極으로 無形無象하고 水火는 陰陽으로 無形有象하고 金木은 氣血로 有形有象하다고 할 수 있다. 太極圖의 三圓에 내부에서부터 燥濕, 水火, 金木을 記入하여 보면 보다 깊은 이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皮膚는 燥濕觀點이 가장 重要

"乾金爲天 天氣主燥 坤土爲地 地氣主濕"이라 하였는데, 人身에서 天은 肺金이 되어서 主天 主陽 主氣하여 陰液을 敷布한다[13]. 人身에서 地는 太陰濕土로 主로 脾가 담당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 "西方生燥 燥生金 金生辛 辛生肺 肺生皮毛 皮毛生腎"라 하여 肺와 皮毛는 六氣分類上 燥金에 해당하며 燥濕은 서로 對待한다. 『素問玄機原病式』[14]은 『素問·至眞要大論』의 十九病機論에 燥邪가 缺하였다 하여 "諸澁枯涸乾勁皴揭皆屬於燥"라는 燥門을 추가하여 二十病機를 만들었다. 濕은 滑澤하고 乾은 澁滯하므로 燥濕은 相反되게 된다. 특히 燥證의 代表인 皴揭는 皮膚啓裂로 乾爲天而爲燥金 坤爲地而爲濕土로 肺가 主하는 皮毛의 證狀이다. 따라서 燥症은 金에 속하므로 肺金의 領域인 肺, 氣管支와 皮部의 領域에서 주로 반응한다. 또한 肺는 手太陰肺經을 主之하여 太陰濕土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皮膚는 六氣 中에서 燥濕關係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3. 乾癬(psoriasis)의 정의와 증상

서양의학에서 설명하는 건선(psoriasis)은 피부에 작은 좁쌀알같은 구진이 생기면서 그 위에 은백색의 하얀 인설이 비늘처럼 겹겹이 쌓여 나타나며 점차 구진이 서로 뭉치거나 커지면서 퍼져나가는 흔히 보는 피부질환의 하나로 분포나 정도가 개인에 따라 아주 다양한 원인 미상의 질환이다. 건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 중 자극을 가장 자주 받는 부위인 팔꿈치, 무릎, 엉덩이, 머리 피부에 가장 잘 생긴다. 이러한 모양을 가진 경우를 관상형이라 하며 이런 형태가 건선 중에 가장 흔하게 보는 형태이다. 대개 악화와 호전이 경우에 따라 반복되는 만성경과를 나타낸다[15][16]. 빈도에 있어서, 건선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인종 및 종족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15만-26만의 신환자가 발생하며 전체 인구 중의 빈도는 1-3%를 차지한다. 건선의 빈도는 인종, 지역 및 환경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동양인, 아메리카 인디안 및 아메리카 흑인에서는 1% 내외로 추정되며 피부과 외래 환자 중에서는 약 3% 내외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녀간의 발생빈도는 차이가 없다. 환자

2)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개정4판), pp. 221-230, 麗文閣, 서울, 2002.
3) 石壽棠, 醫原, pp. 31-35,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3.
4) 石壽棠, 醫原, pp. 31-35,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3.
5) 김영선, 뜻으로 본 周易, pp. 21-22, 선일문화사, 서울, 1991.
6) 唐宗海, 國譯本草問答, pp. 169-175, 大星文化社, 서울, 1996.
7) 唐宗海, 國譯本草問答, p. 130, 大星文化社, 서울, 1996.
8) 唐宗海, 國譯本草問答, pp. 157-160, 大星文化社, 서울, 1996.
9) 唐宗海, 國譯本草問答, pp. 157-160, 大星文化社, 서울, 1996.
10) 唐宗海, 國譯本草問答, pp. 169-175, 大星文化社, 서울, 1996.
11) 李梴, 編註醫學入門, p. 69, 대성문화사, 서울, 1989.
12)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주역철학사, pp. 395-405, 예문서원, 서울, 1998.
13) 石壽棠, 醫原, p. 12,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3.
14) 劉完素, 素問元氣原病式(中國醫學大系 12券), pp. 737-739, 鼎談, 서울, 1985.
15) 윤재일, 건선, p. 9, 고려의학, 서울, 1996.
16)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개정4판), pp. 221-230, 麗文閣, 서울, 2002.

들이 처음 시작되는 연령은 20대에 가장 흔한다. 이어서 10대와 30대에 흔하다. 최근 건선을 초발 연령에 따라 조기초발건선과 만기 초발건선으로 나누고 있다. 이 경우 조기초발건선에서는 중증건선의 빈도나 건선의 가족력이 만기 초발건선보다 높으며 예후도 더 좋지 않다[17].

韓醫學에서는 건선을 癬瘡의 하나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우며 긁으면 흰 비듬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血分에 열이 있고 피부가 건조할 때 風濕毒이 침입하면 생긴다. 皮疹이 생긴 부분은 경계가 명확하고 비후되어 있으며 마르거나 트면서 가렵다. 긁으면 흰 비듬이 떨어진다[18]. 이는 韓方外科의 癬證候와 유사하다. 『中醫外科學』[19]에서는 '銀屑病'이라 하여 그전에는 '牛皮癬'이라 하였고 中醫에서는 '松皮癬', '白疕'라 하였다. 이는 慢性紅斑鱗屑性皮膚病으로 青壯年에 好發한다고 했다. 윤[20]은 "무좀과 건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좀은 외부에서 온 곰팡이에 의한 병이나, 건선은 자신의 피부에서 자체적으로 생긴 병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건선이 外感病이 아니라 內傷病임을 서술하는 것이다. 외부 微生物(virus)의 침입에 의한 것이 아닌 自家免疫疾患이기에 때문이다. 이것이 抗生劑 등 洋藥이 적합하지 않고 건선의 洋方的 원인이 不明인 理由이다.

4. 韓醫學的 乾癬의 이해

1) 명칭과 증상

『說文解字注』[21]에 '癬'은 乾瘍也라 하였다. 乾의 音은 干이고 瘍의 乾한 것 즉 마른 것이다. 釋名에 曰, 癬은 옮기는 것(徙)으로 浸淫하여 옮겨짐이 날로 넓어짐을 서술한다. 참고로 '疥'는 긁는다는 뜻이다. 즉, 癬의 의미는 건조한 皮膚病名[22]을 말함이며, 날이 갈수록 점점 번지는 피부병이라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癬瘡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巢元方의 『諸病源候論』[23]으로 "癬病之候 皮肉隱胗如錢文漸漸增長 或圓或斜痛痒 有匡郭裏生蟲搔之有汁 此肉風濕邪氣客於腠理復值寒濕與血氣相搏則血氣否澁發此疾"이라 하여 乾癬候, 濕癬候, 風癬候, 白癬候, 牛癬候, 圓癬候, 狗癬候, 雀眼癬候, 刀癬候, 久癬候로 十個의 癬候를 나열하였다. 그 중 『諸病源候論·乾癬候』에 "乾癬 但有匡郭皮枯索痒搔之白屑出是也 皆是風濕邪氣客於腠理 復值寒濕與血氣相搏所生 若其風毒氣多濕氣少故 風沈入深故無汁爲乾癬也 其中亦生蟲"이라 하여 피부가 넓게 껍질이 생기고 소양감이 있으며 긁으면 白屑이 생긴다는 증상은 현대 의학의 건선(psoriasis)과 가장 類似하여 지금까지도 韓醫學에서는 乾癬이라 칭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은백색의 하얀 鱗屑이 겹겹이 쌓여 나타나는 특징[24]으로 '銀屑病'이라 하였다.

『中醫皮膚病學』[25]에서 銀屑病은 中醫 명칭으로 '白疕', '松皮癬'이라고 하였다. 이외 '乾癬', '蛇虱', '白殼瘡' 등의 병명이 있다. 本病은 일종의 특징적인 紅斑鱗屑性損傷을 특징으로 하는 쉽게 재발하는 慢性炎症性皮膚病이다. 青壯年에게 호발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많다. 대부분의 환자는 秋冬에 심해지며 夏季에 경감된다.

明代에는 '白疕', '蛇虱'의 명칭이 출현하여 『證治準繩·瘍醫·諸腫』에 "遍身起風疹 疥丹之狀 其色白不痛 但痒 搔抓之 起白疕. 名曰蛇虱"라 하였다. 『外科啓玄』 중에는 본병의 명칭을 '白殼瘡'이라 하였다. 淸代에 이르러서는 白疕의 記載가 더욱 상세하여졌다. 『外科大成·券四』 중에 "白疕膚如疹疥 色白而痒 搔起白疕 俗呼蛇虱. 由風邪客于皮膚 血燥不能營養所致"라고 하였다. 『外科證治全書』는 또 서술하길, "白疕又名庀風 皮膚燥痒 起如疹疥而色白 搔之屑起 漸至肢體枯燥坼裂 血出痛楚……"라고 하여 긁으면 出血이 생김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Auspitz 증후로 병변부의 인설을 제거하면 점상 출혈이 나타나는 것으로 건선의 특이증상을 서술하고 있다[26]. 『醫宗金鑑·外科心法要訣』[27]에서는 '白疕'와 '松皮癬'이라 하였는데, "白疕之形如疹疥色白而瘙多不快固由風邪客皮膚亦由血燥難榮外"라고 하였고 "松皮癬 狀如蒼松之皮 紅白斑點相連 時時作痒"라 하였다. 이상의 표현은 모두 건선의 증상에 부합된다.

2) 燥濕觀點에서 본 원인

『諸病源候論·乾癬候』에 乾癬이 긁으면 白屑이 나오는 원인을 風濕邪氣가 腠理에 客하여 寒濕과 血氣가 相搏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만약 風毒氣가 많고 濕氣가 적은 故로 風이 깊게 沈入하여 無汁하니 乾癬이 된다고 하였다. 그 중에 蟲이 생한다고 하였다[28]. 이와 같이 乾癬은 風毒氣가 많고 濕氣가 적은 것으로 燥濕의 관점에서는 燥多濕少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風은 升生하는 성질로 風은 陽에 속하고 善行數變하므로 『醫學入門』[29]에 "風能燥液"라 하여 津液을 乾燥시키는 성질이 있다. 또한 "治風先治血 血行風自滅"이라 하여 風證을 治療할 때 養血活血에 주의하여야 한다[30]고 하니 이는 風邪가 심하면 血이 燥하여 지고 더 甚하여 지면 瘀血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外科』[31]에 "風癬 卽乾癬 搔之則有白屑"이라 하여 風癬과 乾癬을 동일하게 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風이 능히 血을 燥化시킬 수 있으므로 燥濕觀點에서 보면 風邪는 血燥를 만들게 된다. 다시 血燥한 바탕이 腠理의 氣血을 凝滯시켜 風毒을 誘發한다고 하여 역으로도 볼 수 있다.

『外科大成·券四』에는 白疕의 원인을 "由風邪客于皮膚 血燥不能營養所致"라고 하였고 『醫宗金鑑·外科心法要訣』[32]에서 '白

17)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개정4판), pp. 221-230, 麗文閣, 서울, 2002.
18)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pp. 76-77, 정담, 서울, 1998.
19)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外科學, pp. 141-145, 商務印書館, 上海.
20) 윤재일, 윤재일박사의 건선크리닉, pp. 81-83, 사계절, 서울, 1998.
21) 段玉裁, 說文解字注, p. 350, 大星文化社, 서울, 1990.
22) 商務印書館編輯局, 辭源, p. 1165, 商務印書館, 香港, 1987.
23) 巢元方, 諸病源候論(中國醫學大系 2券), pp. 796-798, 鼎談, 서울, 1985.
24) 윤재일, 건선, p. 9, 고려의학, 서울, 1996.
25) 金起風·周德瑛主編, 中醫皮膚病學, pp. 228-233, 中國醫學科技出版社, 북경, 2000.
26) 윤재일, 건선, p. 31, 고려의학, 서울, 1996.
27) 吳謙, 醫宗金鑑(中國醫學大系 50券), pp. 461-462, 鼎談, 서울, 1985.
28) 여기서 蟲은 외부 感染으로 보여진다.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던 과거에는 內傷에 의한 皮膚病이라하여도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된다. 건선은 외부감염이 아닌 자가면역질환이지만 피부의 진피층이 노출되기 쉬워 항상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著者註)
29) 李梴, 編註醫學入門, p. 163, 대성문화사, 서울, 1989.
30) 黃淑芬, 試論治血先治風, pp. 9-11, 中醫雜誌 38(1), 中醫雜誌社, 北京, 1997
31) 李梴, 編註醫學入門, p. 525, 대성문화사, 서울, 1989.

疕'의 원인을 "由風邪客皮膚亦由血燥難榮外"라고 하였는데 이는 風邪로 因한 血燥가 건선의 원인임을 闡明한 것이다. 중의학에서도 乾癬의 病因病理는 모두 營血虧耗하여 生風生燥하여 肌膚失養而成한다고 하였다. 兼하여 風寒外濕으로 營衛失調하고 혹은 血熱阻于肌膚하여 熏蒸燥血하고 或은 肝腎不足으로 冲任不調하여 營血로 하여금 虧損하게 한 것이 원인이고 혹은 瘀阻肌膚하여 氣血不和한 것이 원인으로 4가지 원인설[33]을 주장한다.

서양의학에서도 건조한 피부는 건선에 유발원인이 된다. 건선 자체로서도 피부가 건조해진다. 또한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건조한 피부가 되기 쉽다. 또한 목욕이나 사우나 등을 자주 오래하는 경우 피부의 수분과 피지막을 제거하게 되어 피부 건조성이 더욱 심해지는데 이런 경우 건선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34]. 이는 피부의 燥證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선의 바탕에는 血燥로 인한 피부의 乾燥現象이 수반되는 것이다.

3) 辨證施治

최근에 중의문헌에서는 다양한 乾癬의 辨證施治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中醫外科學(供中醫類專業用)』[35]에서 風熱血燥, 血虛風燥, 瘀滯肌膚의 3분류를 하였고, 『中醫外科學』[36]에서는 風寒型, 血熱型, 肝腎不足型, 血瘀型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자료인 『中醫皮膚病學』[37]에서는 1. 血熱症, 2. 血瘀證, 3. 血燥症, 4. 濕毒症, 5. 火毒症으로 5분류를 하였으며, 『皮膚病中醫診療學』[38]에서는 風熱症, 風寒症, 濕熱證, 風濕痺阻症, 血熱症, 血瘀證, 血虛症, 血燥症, 衝任不調症, 肝腎不足症, 濕熱蘊毒症, 脾虛濕態症, 毒熱傷營症으로 무려 13辨證分類를 하였다.

『皮膚病專輯 當代名醫臨證精華』[39]라는 서적은 역대 名醫의 乾癬研究를 수집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朱仁康은 乾癬의 원인을 血分有熱이 주요원인이라 하고 血熱風燥와 血虛風燥의 두 가지로 변증하여 치료하였고, 兪錫純은 熱症, 瘀證, 燥症으로 三法으로 분류하여 치법도 淸熱, 活血, 養血法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는 皮疹의 寒熱風濕에 대한 立法을 중시하였다. 즉, 피부분포 顔色, 성질의 다름에 따라 乾癬의 辨證의 근거가 되는데, 예를 들면 皮疹의 분포는 四肢의 伸面은 陽이 되고 屈面은 陰이 되고, 頭面, 上肢 및 體幹上部는 風에 많이 屬하며, 下肢는 濕에 많이 속한다. 皮疹의 基底가 潮紅하면 熱邪가 營血을 燔하는 경우가 많다는 等이다.

胡建華는 血熱, 血燥, 血瘀, 風濕의 四症으로 論治하였으며, 石春榮은 乾癬의 원인을 독으로 인식. 초목보다는 충류인 뱀, 전갈 등을 이용하여 치료하여 효과를 보았고, 周鳴崎은 "乾癬 완고하며 그 증상이 다양하지만 실재적으로 표본, 허실, 신구, 완급을 근거로 분류하면 그 원인은 血熱과 血燥 두 가지이다."라고 하였다. 金起風도 血熱과 血燥로 나뉘었으며, 대부분 血熱은 진행기에 속하고 血燥는 靜止期에 屬한다고 敍述하였다. 朱進忠은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였다. 金夢賢은 脾胃濕熱에 다시 風邪가 感하여 肌膚가 鬱久化燥한 것으로 보아 燥濕祛風, 滋陰潤燥, 淸熱解毒, 通宣肺氣의 四法과 驅蟲之品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는데, 이를 총괄해 보면 피부건조의 원인을 대부분 血燥와 肝腎陰虛, 血虛 등으로 보는 虛症과 血熱, 火毒, 瘀血, 風濕 등으로 보는 實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급성경과보다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적 질환인 乾癬의 특징으로 볼때, 虛症의 원인을 더욱 중시하게 된다.

王[40]은 건선환자의 여러 증상을 연구한 뒤, 그 발병유인이 어떠하던지 건선환자는 陰虛瘀血의 특이체질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형성은 先天的인 腎陰不足, 脾藏허약으로 인한 肺津涸燥로 津不載衛로 인한 衛氣의 循行이 不利하여 營氣가 막혀 通하지 않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러한 陰虛體質에 血熱, 血燥, 血瘀의 단계로 피부에 이상이 있음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乾癬의 발생기전은 腎陰不足과 肺津燥, 그리고 血虛 등의 身體陰液不足 현상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血熱, 血燥, 血瘀, 風濕, 火毒 등이 肌膚에 相搏하여 영위가 어그러져 나타나는 것이 '乾癬'이라 할 수 있다.

5. 四時에 다른 燥濕의 변화

燥濕二氣는 각각 一年의 半을 主한다. 冬至에서 夏至는 歲半前으로 升陽하는 때이다. 冬至는 陽氣가 땅에 潛藏하니 대지가 陽氣를 얻어 濕이 안에서 動하므로 水泉이 動한다. 交春時에는 東風으로 解凍되며 우레가 이에 發聲한다. 東風과 雷는 모두 陽이다. 濕은 陰이므로 陰은 陽化를 쫓기에 陽氣가 대지에서 점점 나옴에 따라 濕氣도 점점 生하게 된다. 따라서 草木은 液을 함유하며 싹을 틔운다. 交夏時에는 溫風이 이르러 陽氣가 대지에서 모두 나와 暑熱이 蒸騰하므로 濕氣가 가장 盛하게 된다. 따라서 土潤溽暑하며 大雨가 때로 행한다. 天地의 氣는 柔를 化하여 剛이 된다. 이는 六十花甲納音에서 丙午丁未인 火가 極上하여 天河水인 水로 化한 것과 유사하다[41].

夏至에서 冬至는 歲半後로 降陰하는 때이다. 夏至는 陽氣가 모두 대지에서 나온 상태여서 一陰이 生하기 시작하기에 아직 燥氣의 時令이 運行하지는 않는다. 交秋時에 凉風이 이르러 白露가 降하고 天地가 비로소 嚴肅해지니 陽은 통일되어 陰이 하강하니 燥氣가 비로소 動하기 시작한다. 秋分以後에 우레의 소리는 거두어지기 시작하고 水가 비로소 마르기 때문에 濕氣가 收斂하기 시작한다. 이때는 寒露, 霜降으로 陽은 통일되어 陰이 漸漸 하강하니 燥氣가 이에 行하게 된다. 고로 초목의 잎은 누렇게 떨어진다. 交冬時에 이르러서는 天氣가 상승하고 地氣는 하강하니 천지가 否塞하여 陽은 통일되고 陰은 완전히 하강하니 燥氣가 가장 盛하

32) 吳謙, 醫宗金鑑(中國醫學大系 50券), pp. 461-462, 鼎談, 서울, 1985.
33)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外科學, pp. 141-145, 商務印書館, 上海,
34) 윤재일, 윤재일박사의 건선클리닉, pp. 29-34, 사계절, 서울, 1998.
35) 陸德銘 主編, 中醫外科學(供中醫類專業用), pp. 149-152,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8.
36)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外科學, pp. 141-145, 商務印書館, 上海,
37) 金起風·周德瑛主編, 中醫皮膚病學, pp. 228-233, 中國醫學科技出版社, 북경, 2000.
38) 徐宜厚 外 2人, 皮膚病中醫診療學, pp. 413-419,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39) 史宇廣 單書健, 皮膚病專輯 當代名醫臨證精華, pp. 52-85,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40) 王暉 施天寧, 乾癬의 주요 병기가 陰虛瘀血임을 논증, 한글판 중의, pp. 7-11, 1993/3.
41) 張介賓, 類經圖翼, p. 15, 대성문화사, 서울, 1990.

여 진다. 陽氣는 地下에 潛藏하여서 밖으로 護衛하는 바가 없기에 水가 비로소 얼기 시작하고 地가 비로소 凍土가 되니 무지개는 감춰져 보이지 아니하고 天地의 氣는 柔를 化하여 剛이 된다[42]. 燥濕二氣는 時行之氣가 되나 또 정상적인 때가 아닌 편파적인 氣도 있다. 예를 들면 가뭄이 오래 되면 燥氣가 勝하여 乾熱 또는 乾涼하니 이도 또한 燥氣가 勝한 것이다. 春에는 風燥가 되고 夏에는 暑燥가 되며, 秋에는 凉燥가 되고 冬에는 寒燥가 된다. 반대로 비가 오래도록 오면 濕氣가 勝하는데 地氣는 不收하고 溽暑陰冷하면 濕氣가 역시 勝하게 된다. 春에는 風濕이 되고 夏와 初秋에는 暑濕이 되며, 深秋와 冬에는 寒濕이 된다[43]. 이는 燥濕二氣의 正常的인 運氣가 아닌 不定期的 運氣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歲半前인 子月에서 午月은 天氣가 上昇하는 계절이므로 木氣가 勝하여 燥할 것 같지만, 오히려 濕하고, 歲半後인 未月에서 亥月은 天氣가 下降하는 계절이므로 金氣가 降하여 濕할 것 같지만 오히려 燥하는 것은 表裏燥濕의 妙理다. 風勝濕하면 燥가 되어야 하나 所謂 寒月에 燥가 甚하고 暑月에 衰한 것은 寒이 能히 腠理를 收斂閉密無汗하게 하여 燥한 까닭에 病이 甚한 것이다. 熱하면 皮膚縱緩腠理疏通하여 汗潤하기 때문에 燥病은 衰한다[44]. 이는 天地運氣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나무로 비유하면 歲半前은 上昇力이 豊富하여 地下의 뿌리에 있는 水分을 上升시키므로 地上의 잎이 濕, 多血, 多水하고 歲半後는 下降力이 强하여 水分이 地下의 뿌리로 몰리므로 地上의 잎은 燥, 多氣하여 落葉으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運氣學에서는 歲半前을 多血로, 歲半後를 多氣로 서술하여서 三陰三陽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皮膚의 生理에서 燥濕의 조절은 가장 중요한 현상이 되므로 너무 燥하거나 너무 濕한 것은 皮膚疾患의 원인이 된다.

## 6. 乾癬의 時間性(天時) 분석

### 1) 乾癬의 時間性(一年)

건선은 겨울에 악화되는 대표적인 피부질환이다. 차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악화되며 따뜻한 기후에서는 호전된다. 또한 노출을 하여 피부에 햇빛을 자주 쪼이게 되는 여름에는 호전된다. 지구상에서 건선의 발생 빈도를 비교해 볼 때 대개 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빈도가 높다[45].우리 나라 기후와 건선악화는 연관성이 많다. 정상인 40대에 들어서면 겨울에는 피부 건조가 심해져 고생한다. 건선 피부는 이런 조절능력이 더욱 떨어져 환절기가 되면 기후의 변화에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건선이 먼저 악화된다. 피부가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는 가을과 겨울에는 특히 문제가 된다[46]. 이는 한의학에서 燥證의 현상으로 앞장에 서술하였듯이 겨울은 陽氣가 沈藏하고 하강하므로 津液이 지하로 숨고 지상은 燥氣가 盛하여지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도 역시 燥하게 되므로 燥證이 원인인 건선은 더욱 겨울에 악화되는 것이다.

건선에 대한 서양의학의 교재들은 여름에 호전된 것을 햇볕을 많이 받아서, 겨울철에 심하게 되는 것을 겨울에는 실내 생활을 많이 하며 두꺼운 옷을 입어 피부에 햇빛을 쪼일 기회가 적은 것은 물론 겨울에 건선이 악화되는 요인이 된다[47]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태양의 陽氣를 받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체생리가 우주생리에 적응되어 겨울에 陽氣는 하강되고 피膚는 대지가 凍土가 되듯이 乾燥하게 되는 원리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피부가 건성이 되면 건선이 더욱 악화되므로 늦가을과 겨울철에는 특히 건선의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48].

### 2) 乾癬의 時間性(一日)

건선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이기에 주야의 변화가 심한 질환은 아니다. 그러나 가려움증이 있으면 대개 건선이 나빠지는데 이러한 가려움증은 대개 저녁이나 밤에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9]. 瘙痒感은 血虛로 인한 경우가 많아 李[50]는 "虛痒血不榮於腠理故也 宜四物湯加味"라고 하였다. 건선의 가려움증은 대개 저녁이나 밤에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1]라고 한 것도 乾癬의 主要原因이 血虛, 陰虛임을 反證하는 晝輕夜重의 현상인 것이다.

### 3) 호발연령과 경과별 임상소견

건선의 발생 연령에 따라서 Christopher 등은 20세 전후에서 생기는 건선을 제 Ⅰ형(type Ⅰ), 50-60세 경에 생긴 경우를 제 Ⅱ형(type Ⅱ)이라고 하였다. 즉 제Ⅰ형은 조기초발군이며 제Ⅱ형은 만기초발군이다. 양 군을 구별하는 나이는 40세 전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제 Ⅰ형인 경우 HLA B13과 B17, Cw6, DR 7의 양성율이 높으면 건선의 가족력이 제 Ⅱ형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52]. 아직 현대과학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단지 당뇨병의 발병기전이 노년층과 청년층이 다르듯 건선 역시 서로 다른 기전이 작용하리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제 Ⅱ형보다 제 Ⅰ형이 더욱 예후가 나쁜 편이다. 이를 한의학에서 보면, 제 Ⅰ형은 先天의 氣質之品이 乾癬의 素因이 있는 것이고, 제 Ⅱ형은 後天的인 氣血의 錯亂으로 발생된 乾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 Ⅱ형은 氣血의 조절로 血燥生風 등을 없애면 되지만 先天的인 제 Ⅰ형은 精氣神 분야의 문제이기에 꾸준히 精을 補强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한의학의 五遲證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건선의 경과별 임상소견은 살펴보면, 주로 만성경과를 가지는 판상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때로는 전신성 농포성 건선의 경우와 같이 급성형으로서 매일 매일 경과가 급변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며 아급성의 경과를 가지기도 한다[53]. 이를 한의학에서 보면 病情의 緩急일 것이다. 대부분의 건선은 血燥를

42) 石壽裳, 醫原, pp. 31-35,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3.
43) 石壽裳, 醫原, pp. 31-35,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3.
44) 劉完素, 前揭書, pp. 737-739,
天地相反燥濕異用 故 燥金主於緊斂所以秋脈緊細而微 濕土主於縱緩所以六月其脈緩大而長也 如地濕則縱緩滑澤 乾則緊斂燥澁皴揭之理明可見焉 俗云皴揭爲風者由風能勝濕而爲燥也 經言厥陰所至爲風府爲墜啓由風勝濕而爲燥也 所謂寒月甚而暑月衰者 由寒能收斂腠理閉密無汗而燥故病甚也 熱則皮膚縱緩腠理疏通而汗潤故病衰也 或以水濕皮膚而反喜皴揭者水濕自招風寒故也
45)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개정4판), pp. 221-230, 麗文閣, 서울, 2002.
46) 윤재일, 윤재일박사의 건선클리닉, pp. 29-34, 사계절, 서울, 1998.
47) 윤재일, 윤재일박사의 건선클리닉, pp. 29-34, 사계절, 서울, 1998.
48) 윤재일, 윤재일박사의 건선클리닉, pp. 29-34, 사계절, 서울, 1998.
49) 윤재일, 윤재일박사의 건선클리닉, pp. 29-34, 사계절, 서울, 1998.
50) 李梴, 編註醫學入門, p. 372, 대성문화사, 서울, 1989.
51) 윤재일, 윤재일박사의 건선클리닉, pp. 29-34, 사계절, 서울, 1998.
52) 윤재일, 건선, pp. 12-13, 43-44, 고려의학, 서울, 1996.
53) 윤재일, 건선, pp. 42-43, 고려의학, 서울, 1996.

낀 虛症의 증상을 바탕으로 하기에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나, 風毒이나 血毒, 熱毒의 毒 개념이 발생하면 대단히 급성적이고 빠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는 실증이 많으니 淸熱解毒化瘀의 治法을 사용하여야 한다[54].

7. 乾癬의 空間性(地方) 분석

1) 乾癬의 空間性(緯度)

위와 같이 燥濕二氣는 四時의 계절이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東西南北의 방위에도 영향을 받는다. 西北은 땅이 높아 燥氣가 勝하고 東南은 땅이 낮아 濕氣가 勝한다[55].

건선은 차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악화되며 따뜻한 기후에서는 호전된다. 지구상에서 건선의 발생 빈도를 비교해 볼 때 대개 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빈도가 높다[56]. 이를 서양의학에서는 피부노출을 하여 피부에 햇빛을 자주 쪼이게 되는 여름에는 호전하기에 햇빛의 조사량이 적은 위도가 높은 지역은 통계적으로 건선 유병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57]. 한의학에서는 서북이 燥氣가 勝하기에 위도가 높은 지역과 대륙의 서쪽이 燥氣가 勝하게 되어 있다. 유라시아대륙에서 보면 스칸디아반도 등은 대륙의 서북쪽이다. 따라서 燥濕의 관점에서는 燥氣가 勝한 지역이 乾癬의 유발율이 높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2) 乾癬의 空間性(發疹部位)

건선의 발진은 주로 대칭성으로 오며 호발부위는 무릎, 팔꿈치, 둔부, 두부 등이다[58].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무릎과 팔꿈치이며 이곳은 건선이 처음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이런 특이한 호발부위를 서양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피부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윤[59]은 "일이나 학업, 작업, 심지어 운동 등 모든 일상의 일이 이 피부 부위에 크건 작건 자극을 가하는 것을 보면 왜 이 부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빈번히 건선이 생기는지 이해가 된다. 그밖에 머리와 엉덩이에도 많이 생기는데, 이 역시 매일 머리를 매만지거나 빗질을 하며,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등 피부자극을 주로 받는 부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건선에서 나타나는 피부의 국소적 손상 부위에 동일한 질병이 생기는 Koebner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Koebner 현상은 건선 이외에도 편평태선, 광택태선, 모공성 홍색 비강진 등에서 올 수 있다[60].

한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건선의 주요 발생부위인 머리, 무릎, 팔꿈치는 모두 十二經絡上 陽經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陽經의 衛氣作用과 연관이 많음을 의미한다. 건선의 발병부위는 아토피 증상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아토피의 증상은 소아기에는 전주부, 슬와부 등의 굴측(flexor)에 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성인기에도 소아기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 屈側, 목의 양측, 얼굴 등에 나타나며, 태선화화와 같은 만성병변이 많이 나타난다[61]. 즉 아토피는 陰經部位인 屈側에 병변이 나타나고 건선은 陽經部位인 申側에 병변이 나타난다. 이는 아토피의 原因은 營血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乾癬은 衛氣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62].

8. 건선과 체질관계(人事) 분석

위에서 燥濕에 관한 天時와 地方에 대한 서술을 하였다. 六氣는 계절과 공간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人身의 체질의 특성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된다. 六氣가 人을 傷할 때 陰虛體質은 가장 쉽게 燥로 化하여 燥濕에서 燥는 진실로 燥가 되고 濕도 역시 燥로 化한다. 陽虛體質은 가장 쉽게 濕으로 化하여 濕은 진실로 濕이 되고 燥도 역시 濕으로 來한다. 진실로 外感百病의 요인은 燥와 濕일 따름이다[63]. 따라서 平素에 陰虛인 체질이 건선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상인 40대에 들어서면 겨울에는 피부 건조가 심해져 고생한다. 건선 피부는 이런 조절능력이 더욱 떨어져 환절기가 되면 기후의 변화에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건선이 먼저 악화된다. 피부가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는 가을과 겨울에는 특히 문제가 된다[64]. 이러한 내용도 건선 환자의 신체적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기본적인 체질이 陰虛냐 陽虛냐가 濕證 疾患에 잘 罹患되는지, 乾燥證 질환에 잘 罹患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精이 虛하게 되어서 皮膚津液은 떨어지고 주름이 잡히게 된다. 따라서 고령으로 될수록 피부건조가 심하게 되는 것이다.

9. 임상적 증상연구와 자연에 대한 비유

1) 임상적 증상연구

건선의 형태별 임상소견은 1) 판상건선(plaque psoriasis), 2) 물방울양 건선(guttate psoriasis), 3) 농포성 건선(pustular psoriasis), 4) 건선성 홍피증(psoriatic erythroderma), 5) 기타로 선상건선, 지루성 건선, 습진성 건선 등이 있다. 이외 추가로 피부 외의 합병소견에 건선관절염 등이 있다[65]. 이 중 판상형 건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의학[66][67]에서는 이를 대부분 尋常

54) 史宇廣 單書健, 皮膚病專輯 當代名醫臨證精華, pp. 52-85,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金起風은 은설병을 血熱과 血燥로 나뉘었다. 대부분 血熱은 進行期에 屬하고 血燥는 靜止期에 屬한다고 敍述한다. 血熱이 심해지면 毒이 형성된다. 따라서 本病의 핵심은 '血熱毒盛'이다. 朱進忠 銀屑病은 急性과 慢性의 구분이 있다. 급성은 皮膚損傷部의 基底가 紅赤하며 白色鱗屑이 많이 보인고 慢性은 皮膚損傷面이 광범위하여 皮膚가 肥厚되며 基底도 비록 紅色이나 비교적 어둡고 鱗屑 역시 광택이 결핍되어 있다.

55) 石壽棠, 醫原, pp. 31-35,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3.

56)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개정4판), pp. 221-230, 麗文閣, 서울, 2002.

57) 윤재일, 건선, p. 12, 고려의학, 서울, 1996.
미국 백인에서는 1-2%, 스칸디나비아 등의 위도가 높은 경우 2-3% 등으로 높은 유병율을 나타내고 있다.

58)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개정4판), pp. 221-230, 麗文閣, 서울, 2002.

59) 윤재일, 윤재일박사의 건선클리닉, pp. 12, 22-23, 사계절, 서울, 1998.

60)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前揭書, pp. 221-230.

61)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前揭書, pp. 163-164.

62) 아토피와 건선은 굴측과 신측의 병변부위가 다르지만 피부가 건조하고 겨울에 악화되는 특징은 같다.

63) 石壽棠, 醫原, pp. 31-35,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3.

64) 윤재일, 윤재일박사의 건선클리닉, pp. 29-34, 사계절, 서울, 1998.

65) 윤재일, 건선, pp. 29-54, 고려의학, 서울, 1996.

66) 陸德銘 主編, 中醫外科學(供中醫類專業用), pp. 149-152,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8.

67) 金起風·周德瑛主編, 中醫皮膚病學, pp. 228-233, 中國醫學科技出版社, 북경, 2000.

67) 윤재일, 건선, p. 9, 고려의학, 서울, 1996.

69) 윤재일, 윤재일박사의 건선클리닉, pp. 12, 22-23, 사계절, 서울, 1998.

型, 膿疱型, 關節型, 紅皮病型의 四類型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辨證施治의 1) 血熱症, 2) 血瘀證, 3) 血燥症, 4) 濕毒症, 5) 火毒症의 구조에 맞기 때문이다.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상형(尋常型) 건선의 증상은 피부에 작은 좁쌀알 같은 구진이 생기면서 그 위에는 은백색의 하얀 인설이 비늘처럼 겹겹이 쌓여 나타나며 점차 구진이 서로 뭉치거나 커지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다[68]. 이러한 이유는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피부각질세포(KC)가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69]. 이러한 현상을 한의학에서 분석을 하면 銀白色은 金에 屬하는 色이고, 피부가 건조하며 角化되는 것과 痂皮, 鱗屑등 피부표현도 딱딱하다는 金의 속성이다. 따라서 燥金의 작용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에 燥濕調節의 불균형에서 온 것이라고 思料된다.

2) 건선의 자연에 대한 비유

『周易』에 "近取諸身 遠取諸物"이라 하듯이 예로부터 동양학에서는 人身의 變化를 자연에 비유하고 자연의 변화상을 人身에 비유하여 우주만물의 변화상을 이해하였다.

건선을 자연에 비유하면 燥證의 대표인 사막화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대지는 푸른 초목에 뒤덮여 있어야 한다. 이는 皮膚가 윤택한 表皮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다. 대지가 사막화가 되면 지표는 메말라 갈라지고 초목들은 활엽수 등 수분흡수방출이 잦은 식물들을 모두 고사되고 식물들이 스스로 살아가고자 角質化된 선인장 등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수분방출을 최소화한 角化된 세포가 생성되는 것이다. 건선에 비유하면 피부 각질세포가 영양공급을 어떠한 영향으로 받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영영 공급을 받고자 대사가 과잉 항진되어 角質化가 정상세포의 3배 이상 되는 데 이는 전적으로 병리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각질세포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생명을 연장해 가고자 하는 생리적인 변화상일 것이다. 이렇게 사막화된 대지를 단지 하늘에서 비가 한두 번, 즉 보습제를 외부에서 바르는 것, 내린다고 사막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즉 사막화된 대지를 푸른 산림의 옥토로 만들 생각을 해보자. 지하의 관계수로가 발달이 되어서 대지(피부) 자체에서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층의 발달로 수분을 유지하고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건선 증상 자체를 없애려면 선인장화 된, 강한 收斂性으로 角質化 된 초목을 풀어주어야 한다. 한방에서는 대부분 潤劑에 風藥을 약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이다. 강하게 수렴되고 감겨있는 세포를 한번은 풀어줘야 한다.

물론 건선의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陰證과 陽證이 있듯이 지하수가 풍부한 대지가 지하의 수분을 상승시키지 못하여 생기는 사막화(건선)와 대지의 표리가 모두 말라버린 진정한 사막화(건선)가 있을 것이다. 전자는 지하의 수분을 끌어올려서 관계수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후자는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지하의 관계수로를 형성하여 주어야 한다. 前者는 濕證의 변화이라면 後者는 燥證의 변화이다. 물론 그래도 대지(피부)가 사막화(表皮燥化)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 결 론

이상과 같이 燥濕에 대한 이론과 燥濕관점에서 살펴본 乾癬의 원인과 증상을 이해하여 원리를 연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燥濕은 先天之體가 되고 水火는 後天之用이 된다. 皮部는 手太陰肺經의 영역이기에 太陰濕土와 肺金의 燥金의 性質로 六氣中 燥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건선(psoriasis)은 中醫에선 '銀屑病'이라 하고 韓醫學에선 '乾癬'이라 하였으며 '燥'가 基本的인 원인이다. 乾癬의 특징인 銀白色 鱗屑, 痂皮, 角質化 등은 色과 質에 있어서 燥金의 속성이다. 시간적으로 건선은 겨울에 악화되는 대표적인 피부질환인데, 이는 燥證이 원인이 된다. 공간적으로 緯度가 높을수록 증상이 악화되는 것도 서북이 燥氣가 勝하기 때문이다. 發疹의 부위는 머리, 무릎, 팔꿈치 등 陽經에 속하는 부위가 특징이다. 건선은 평소 陰虛體質인 사람한테 자주 罹患될 것이다. 건선의 자연에 대한 비유법은 '대지의 사막화'로 비유될 수 있다.

## 참고문헌


1.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2.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3. 石壽裳, 醫原,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3.
4. 唐宗海, 國譯本草問答, 大星文化社, 서울, 1996.
5. 劉完素, 素問元氣原病式(中國醫學大系 12券), 鼎談, 서울, 1985.
6. 巢元方, 諸病源候論(中國醫學大系 2券), 鼎談, 서울, 1985.
7. 吳謙, 醫宗金鑑(中國醫學大系 50券), 鼎談, 서울, 1985.
8. 李梴, 編註醫學入門, 대성문화사, 서울, 1989.
9. 張介賓, 類經圖翼, 대성문화사, 서울, 1990.
10. 윤재일, 건선(건선 아트라스), 고려의학, 서울, 1996.
11. 윤재일, 윤재일박사의 건선클리닉, 사계절, 서울, 1998.
12.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개정4판), 麗文閣, 서울, 2002.
13. 金起風·周德瑛主編, 中醫皮膚病學, 中國醫學科技出版社, 북경, 2000.
14. 史宇廣 單書健, 皮膚病專輯 當代名醫臨證精華,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15.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外科學, 商務印書館, 上海.
16. 段玉裁, 說文解字注, 大星文化社, 서울, 1990.
17. 商務印書館編輯局, 辭源, 商務印書館, 香港, 1987.
18.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정담, 서울, 1998.
19. 王暉 施天寧, 乾癬의 주요 병기가 陰虛瘀血임을 논증, 한글판 중의, 1993.
20. 黃淑芬, 試論治血先治風, 中醫雜誌 38(1), 中醫雜誌社, 北京, 1997.
21. 김영선, 뜻으로 본 周易, 선일문화사, 서울, 1991.